

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 19일 홍천군청, 20일 태백시청, 21일 영월군청에서 코로나19와
수해피해 고충 상담·해결 -

(2020. 8. 19, 국민권익위)

강원도 홍천군·태백시·영월군에서 코로나 19와 수해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7개 협업기관과 함께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홍천군·태백시·영월군에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했다.

운영기관	강원 홍천군	강원 태백시	강원 영월군
일 시	8. 19.(수) 10:00~16:00	8. 20.(목) 10:00~16:00	8. 21.(금) 10:00~16:00
상담장	군청 3층 대회의실	시청 3층 대회의실	군청 2층 대회의실
참여기관	춘천, 횡성, 인제	삼척	정선, 평창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동 신문고 장소에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예방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충을 중점 해결한다.

이와 함께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서민자금지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협업기관)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상담분야는 안전, 복지, 환경, 세무, 주택,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으로 구성된 전문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총 39회 운영해 821건을 상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징계 시 감경 못하게 해

-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

(2020. 7. 2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19.10.)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등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규 개선 점검TF’를 구성해 ▲기관별 내·외부감사 결과 ▲언론보도 ▲주요현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항목을 청렴도 측정에 반영

- 지방체육회, 소규모 지방의회도 측정 대상기관에 포함 -

(2020. 7. 28, 국민권익위)

723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킨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렴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반부패노력을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특히 올해의 경우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3년간의 노력으로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이전

- 고속도로변에 홀로 선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영월공원으로 이전 -

(2020. 7. 24, 국민권익위)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이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의 주변 환경 정화 등을 요청하는 그리스 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현장조정회의는 유튜브 '권익비전'과 스카이프 화상회의 생중계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그리스 참전용사들과 임수석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했고, 현장에는 이휘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그리스는 6·25전쟁 기간 중 5,000여 명을 파병하여 전사 200여 명, 부상 600여 명의 희생을 치렀다.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는 이러한 그리스군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74년 국방부가 그리스로부터 직접 공수한 대리석으로 제작됐다. 그 후 국가보훈처가 2003년 현충시설로 지정했으며 경기도 여주시가 관리해오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는 참전기념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고요하고 한적한 동산이었지만 물류창고, 수소가스충전소, 흡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차츰 확장돼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말까지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경기도 여주시 내의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며 경기도 여주시는 영월공원을 참전기념비 이전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전 공사 후 현재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부지를 정리하고, 향후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와 관련한 현충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한 그리스대사관은 이전 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등 자재의 신속한 운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서 신청한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하는 자리로, 민원을 신청한 그리스 참전용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이전 소감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영월공원으로 이전돼 시민들 곁에서 참전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또한,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한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헌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접수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태 스티비 정부 혁신경영상 금상 수상

- 공정·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높이 평가 받아 -

(2020. 7. 1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에서 정부 혁신경영상(Award for Excellence in Innovation in Government) 부문 최우수상인 금상을 차지했다.

스티비 어워즈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 아태 스티비상을 포함하여 8개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1만여 개 이상의 출품작을 받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과 조직을 선정하는 국제적 시상식이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은 2013년부터 아태지역 29개국의 모든 기업, 단체, 정부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조직과 성과에 대해 부문별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아태 스티비상은 ‘혁신(Innovation)’을 키워드로 선정해 지난 2년간 조직 운영 실적 전반에 대해 혁신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아태지역 20개국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이 1,200여개 출품작을 응모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혁신경영상(종업원 100명 이상) 부문에서 고객센터 분야, 홍보 분야, IT 분야의 운영 성과와 혁신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집단민원 집중 해결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홍보 분야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홍보와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AI 기술에 기반하여 새롭게 개통된 국민권익위의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정책소통창구) 등에 대해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아태 스티비상 정부 혁신경영 부문 금상 수상은 공정·청렴정책의 끊임 없는 추진과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당초 오는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악화되어 9월 22일(화) 온라인(asia.stevieawards.com)으로 개최될 예정이다.